

고흥군, 소통의 장 '청림 페스타(festa)' 성료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서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복한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장 '청림 페스타(festa)'를 개최했다.

이번 '청림 페스타(festa)'는 세대, 직위를 떠나 공직 전반에 대한 생각과 군정 주요 사안에 대한 세대별 입장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공감 토크를 시작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과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주요 교육 테마로 삼았다. 특히, 부서장과 MZ세대 간 청림이란 단어 및 청림 문화에 대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바로 보는 자리' 마련을 주요 목표로 세대별 청림 공감대를 형성코자 했다.

이날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특별교육 강사로 나선 공영민 군수는

청림하고 친절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내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MZ세대 공직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공영민 군수는 "지금까지 많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 간 긍정적 변화가 생겼지만, 세대와 문화 차이에 따른 이질감 해소를 위해 서로 더 배려하며 소통하는 직장 그리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 간 청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더 나아가 친절과 청림이 고흥군의 대표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민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최근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에서 부서장과 MZ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행복한 공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장 '청림 페스타(festa)'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장흥군새마을회 영농 봉사

장흥군새마을회(회장 김일진)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장흥군협의회(회장 김정원)는 주말을 이용해 새마을회원과 회원가족 50여명이 함께 지역의 마늘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인력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자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 농가의 시름을 덜고, 지역 농산물 생산을 위해 고생하는 지역 농민들의 수고를 몸소 실천하기 위해 일손을 보탤었다.

새마을가족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관산읍 삼산마을 1천여 평의 마늘밭에서 마늘 수확과 선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며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고를 체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바쁜 농사철 영농 차질없이 작기에 농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한 새마을회원과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새마을회는 매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손 부족한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백두연 기자

진도군, 주민이 직접 만드는 마을축제 문화예술자산을 축으로 엮어내는 도시재생

진도군은 최근 진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옥주골 어울림센터 열림식'과 주민이 직접 만드는 진도형 도시재생 마을축제인 '옥주골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되는 첫 번째 거점공간인 옥주골 어울림센터는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화예술 중심의 지역 성장과 발전을 이끌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구)진도우체국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공간이며, 1층에 조성된 '옥주골 하하호호놀이터'는 지역 초등학생 20명이 어린이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통해 기초설계과정에 참여해 공간을 형성했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울림 프리마켓, 어울림 소통마당, 문화예술프로

그램 체험, 어린이 디자인단 및 꼬마해설사 결과물 전시, 도시재생대학 분과 및 문화예술아카데미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직접 축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배섬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축제 준비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주민 주도 축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진도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옥주골 마을축제를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진도읍 도시재생인정사업은 6월 말까지 마무리 하고, 일반 근린형인 진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진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평 기자

해남군,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 공모 선정

해남군이 전남도 주관 공유자전거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는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불필요한 자전거를 기증받아 재활용한 후 대여소에서 공공자전거로 대여해 주게 된다.

우선 100대의 자전거를 수거 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여소 설치와 방치 자전거 수리, 자전거 대여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여사업은 올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군은 자전거 대여시 안전용품을 구비하고, 수리 기술자 등 인력을 채용해 대여소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자전거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도보환경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를 재활용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확보와 환경 개선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형 ESG의 확산을 통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보현 기자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막자)가 영농철을 맞아 보성을 소재 차 재배 농가를 찾아 찾았따기 일손 돕기 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4명은 찾았을 따며 구슬땀을 흘렸다.

차 재배 농가 농장주는 "일손 부족으로 수확 시기를 놓칠까 막막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덕분에 큰 힘이 됐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막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돼 뿌듯하다"라고 말했다. /강중수 기자

완도,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완도군은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관내 업체와 함께 참가해 완도 수산 식품을 홍보했다.

이번 식품산업대전에는 ㈜완도사랑에스엔에프, 완도다영어조합법인, 완도전복주식회사, (유)완도세계로수산, 해성인터내셔널, 어업회사법인 완도고금바다(주), ㈜해정

정, 우성물산, 완도담양어조합법인, 대한물산, 그린오션 등 11개 업체가 참가해 완도군 공동관을 운영했다. 업체들은 전복 차우더와 광어 죽, 해초 국수, 조미김 등 다양한 수산 가공 제품을 선보여 국내외 바이어들과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수산물은 정화 작용과 생리 활성 촉매 역

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된 바다에서 자라 맛과 효능이 좋은 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아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면서 "완도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 및 판촉전, 전시회 등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백나영 기자

